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4. 11 + 12 vol. 130

인간의 체온은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만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도 놀랄 만큼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겨울, 당신의 마음은 몇 도인가요?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 볼을 스치는 차디찬 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떨어진 기온 대신 체내 에너지의 온도를 높여야 할 때인데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차분히 마음을 다잡아 다가오는 2015년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1+12월호에서는 우리 아이 건강 체크로 2014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신생아에서 청소년기까지 연령별 신경발달단계의 특성과 문제를 살펴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를 비롯해 ADHD 사례를 통해 행동장애 증상과 치료 방법을 확인하는 '우리 아이 집중력은 몇 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의 소아 아토피피부염을 다룬 '아이의 가려움증 어떻게 극복할까?'를 차례대로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신념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여러분도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 충 기

VOL.130 | 2014 | 11+12

한양대학교의료원

SPECIAL THEME

우리 아이 건강 체크로 2014년 마무리

신경발달·행동장애·소아 아토피피부염

2014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아이의 건강을 살펴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1+12월 호에서는 신경발달, 행동장애,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특성과 치료 방법을 소개하며, 건강한 삶을 약속합니다.

02 즐거운 편지 |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08 Love, Life |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들

SPECIAL THEME
우리 아이 건강 체크로 2014년 마무리

12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 □ 신경발달
14 우리 아이 집중력은 몇 점? | □ 행동장애
16 아이의 가려움증 어떻게 극복할까? | □ 소아 아토피피부염

18 Hanyang Topic |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tvN 드라마 〈아홉수 소년〉 과민성 대장 증후군
24 베스트 파트너 | 맑은수병원
26 Dr. Opera | 쟈크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28 Dr. Movie | 굿 바이 마이 캡틴, 로빈 윌리엄스 & 2014년 눈을 감은 영화인들
30 고마운 당신에게 | 급성 신우신염과 만성 신부전 치료 후 일상을 찾은 이선구 님
32 수퍼푸드 레시피 | 효능만큼은 특급 채소, 브로콜리
34 Hanyang News | 2014년 후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문화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4년 11월 1일 통권 130호 **발행인** 박충기 **주소** 133-79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009

틀에 얽매이지 않는 멋을 간직하다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의사는 차갑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공부벌레 타입일 것만 같은, 고정된 이미지에서 비롯된 전형 같은 것이 있다. 새로운 기기라면 누구보다 환호하고, 시간이 나면 두발로 세상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싶다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유교상 교수는 전형을 벗어나도 한참은 벗어난 의사다. 안 하겠다면 몰라도 할 거면 제대로 한다는 철학으로 사는 그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멋을 아는 의사다.

글. 임지영 사진. 김상민

막연했던 꿈을 현실로 옮기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인터뷰를 위해 찾은 유교상 교수는 담도가 막히는 바람에 황달이 생긴 70대 췌장암 환자의 내시경 수술 중이었다. 고개를 25도 각도로 기울인 채 수술실에서 두 대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는 그의 눈에서는 열기인지 냉기인지 모를 무언지 강렬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다.

전체 치료과정으로 보자면 본격적인 스텐트 삽입수술 전 임시치료에 불과하긴 하지만, 오늘 한 ERCP 시술은 내과에서는 꽤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시술이다.

"일 년이면 삼사백 명의 환자들이 이 시술을 받아요. 췌담도 주전공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인데, 전국 의과대학 40여 개를 통틀어 췌담도를 주전공한 전문의가 100여 명을 헤아릴 정도니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얼마나 적은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유교상 교수는 치료는 물론, 정확한 진단조차 까다로운 췌담도 분야의 손꼽히는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 지금은 고난이도 내과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몇 안 되는 췌담도 전문의 중 한 사람이지만, 하마터면 사진작가나 건축가가 될 뻔한 재미있는 과거도 있었다.

"사진과 건축에 꽤 관심이 있었고 건축의 경우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는데, 결국 부모님 뜻 절반, 제 뜻 절반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했어요. 진학 후에는 후회해본 적이 없고요."

많은 의과대학 전공 중에서 그가 내과로 전공을 결정한 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타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였다. 내과를 전공한 선배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어서' 내과로 전공을 정했고, 처음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난 후 얼마 동안은 까마득해 보이기만 하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 같은 자부심에 나름 뿌듯했다고 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는 나이 사십을 먹었을 때 의사가 되어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진짜 이렇게 매일 의사 가운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가장 의사다운 전공이라 생각했던 내과는 실제로도 정말 고뇌와 연구를 거듭하게 만드는 분야였고요."

평소에는 친근, 일할 때는 엄격

장비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췌장이나 담도의 경우 병의 상태나 정도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화기도 그냥 소화기가 아니라 간, 위, 장 등 전부 나누어져 있잖아요? 병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각각의 장기마다 또 세분화된 전문의가 있으니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일은 이들이 해야 할 치료나 시술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주는 진단자라 할 수 있어요."

내과 전문의 초기, 오진에 대한 공포는 그렇지 않아도 꼼꼼한 그를 더욱 철저한 의사로 만들었다. 병원 밖에서는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지만 병원 안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호랑이 선생님이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진단은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데, 진단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물 전체, 즉 수술 및 치료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각성에서다.

그의 꼼꼼한 성격 덕분이었을까. 2013년 5월, 19년 만에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돌아온 그에게 병원 측은 '홍보실장'이라는 타이틀을 수여했다. 착실히 쌓아온 경력,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거란 기대에서였다.

강의를 하고 환자들을 만나기에도 벅찬 스케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제3의 타이틀에 충실하기 위해 구리 롯데백화점에 건강강좌를 개설하고 방송 매체의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젊은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병원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젊고 신선한 외피를 입혔다. 그야말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조차 되지 않을 만큼 정신 없던 나날들이었지만 그만한 보람은 있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보수적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칫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인위적인 홍보는 하고 싶지 않았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수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개선하려 애썼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한층 젊은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의사의 근본은 '인본'

지난 1년 4개월 동안 홍보책임자로서 그가 바꾼 건 어쩌면 병원의 이미지만이 아닌 그 자신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는 의사의 눈으로 보는 병원과 경영자의 눈으로 보는 병원이 상당히 달랐고, 경영자의 눈으로 보는 의사는 의사의 눈으로 보는 의사와 또 달랐다고 말한다.

"요즘은 융합이 화두잖아요? 병원 내에도 융합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요. 의사라고 환자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다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습관이나 기존의 일상을 지탱하던 질서에 의해 반복될 법도 하건만, 그는 매너리즘을 경계한 채 여전히 '어떤 의사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휴머니스트다.

"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대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경험이 부족한 시절의 이야깁니다만 예전에는 환자 가족들에게 간병인을 붙이라는 얘기를 너무도 쉽게 하곤 했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는 줄 알았지 돈이 없어 간병인을 쓰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경험이 쌓이고 시야가 넓어지고 나니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들까지 보이더라고요. 관점이 변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접근 방식도 바뀐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 유교상 교수는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소설을 다시 읽는가 하면, 얼핏 전공인 의학과 무관할 것 같은 인문학 서적을 손에 들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것이 그가 책을 읽는 이유다. 책 속에서 그는 매일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난다.

"그래 봤자 가벼운 인문학 책들이에요. 최근에는 '디퍼런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다르다는 피상적 차이는 알고 보면 외형 등 눈에 보이는 사소한 물리적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무턱대고 다르다 우기지 말고 진정한 차이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앞으로의 의사들은 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정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유교상 교수. 학생들에게도 전공 공부는 기본이요, 두루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삶을 체험할 것을 조언한다. 의사라는 직업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일인 만큼 그에 따른 사명감과 이해력이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의학서적만 보는 의사이고 싶지 않아요.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는 의사이고 싶지. 그런데 시간이 허락해줄지는 아직 자신이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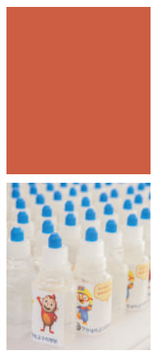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학 때 취미를 살려 작은 카메라 하나 들고 곳곳을 누비며 손바닥만한 뷰파인더로 못 보던 세상을 발견하고 싶다는 그. 천상 그는 크레졸이나 포르말린이 아닌 '사람 냄새' 나

"의학서적만 보는 의사이고 싶지 않아요.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는 의사이고 싶어요."

19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유교상 교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4 구리코스모스축제 의료 봉사 현장



끝 간 데 없이 푸르렀던 하늘과 한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2014 구리코스모스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랑살랑 흔들었던 10월 4일. 200여 명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도 코스모스 축제 속 또 하나의 건강 축제로 자리 잡은 무료 진료소 오픈 준비에 한창이었다. 의료진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축제를 찾은 시민들과 연신 눈을 맞추고 미소를 건네며 올바른 건강 정보 전도사로 맹활약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코스모스보다 활짝 피어난 하루였다.

글. 이지연 사진. 이정민

축제 속 또 하나의 축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4회 구리코스모스축제에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늘하늘한 자태를 뽐내며 만발한 코스모스 밭을 지나 흰 천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건강축제한마당' 행사장에 들어서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준비한 10여 개의 무료 진료소 부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천절 공휴일과 주말이 맞물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황금연휴라 불렸던 코스모스축제의 두 번째 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의료 봉사에 기꺼이 동참했다. 진료소를 가득 메운 의료진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명약과도 같았다.

구리코스모스축제가 시작된 초기부터 류마티스내과와 재활의학과 등이 주축이 되어 소규모로 무료 진료소를 열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4년 전부터 치과, 정형외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등이 더불어 참여하는 대규모 의료 봉사를 펼쳐왔다. 축제 TFT팀은 오늘 하루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과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구선완 인사총무팀장을 비롯한 행사지원팀은 아침 6시 30분에 병원을 출발해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구와 장비 등을 행사장으로 실어 나르며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 애를 쓰고 있었다.

"해마다 3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올해는 의사, 약사, 간호사 체험 등 체험 중심의 '미래의 꿈을 키워보아요'와 뇌혈관 건강, 당뇨병 예방클리닉, 만성통증, 골절 등을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100세까지 팔팔하게'구강보건 및 시력에 대해 알아보는 '튼튼한 치아, 소중한 눈' 이렇게 3개의 테마로 나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어요. 더불어 최신 PET-CT 무료 검진권, 간초음파 무료 검진권,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을 마련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제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은 이제는 병원의 연중행사가 된 축제를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전파하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기 한양대학교병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도 봉사 현장을 찾아 휴일도 잊은 채 선뜻 행사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의료 봉사 현장의 온도를 높였다.

찾아가는 진료를 행하다

오전 9시, 건강축제한마당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양밴드(HY Band)'의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한양밴드는 '오늘이 데뷔무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와 실력으로 구리코스모스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레 무료 진료소로 끌어들였다. 행사장 입구에서 독특한 패션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인공신장실 강은미 파트장과 간호사들이었다. 손 씻는 방법을 전수 중인 이들은 도널드 덕, 케로로 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 의상을 입고 나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 축제를 즐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자녀들 둔 젊은 부부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부스는 간호국에서 준비한 의사 체험과 간호사체험, 약제팀에서 마련한 약사 체험 코너였다. 아이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고사리손으로 직접 약을 조제하는가 하면 아기인형에 주사를 놓으면서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갔다.

직업 체험 부스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몰렸다면 뇌혈류 측정 검사, 골다공증 검사, 혈당 측정, 만성통증 관련 검진 부스에는 중장년층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당뇨병 예방 클리닉에서 시민들과 상담 중인 내분비대사내과 홍상모 교수는 3년째 의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뜻 병원에 오기 힘든 분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찾아가는 진료를 통해 간단히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료 진료소의 매력 같아요. 당뇨가 있는지 몰랐던 환자가 이곳에서 검진을 받고 병을 발견한다거나 이미 당뇨가 있음에도 건강관리법을 몰라 고민했던 환자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해줄 때 무척 보람을 느끼거든요."

병원에서보다 4~5배 가량 많은 환자들을 대면하는데도 의료진의 얼굴에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의술과 재능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리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료진의 사랑 실천

시간이 흐를수록 정형외과 김종헌 교수팀의 '골절 없는 세상' 부스에 소문을 듣고 달려온 50~60대 여성 환자들이 몰렸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골다공증 상담에 들어간 김보현 전공의는 "골다공증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며 지친 기색 없이 상담을 이어갔다. 구리코스모스축제에 왔다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달려왔다는 60대 김미경 씨는 "그렇지 않아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 속이 시원하다"며 무료 진료소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 이렇게 3개의 진료과가 함께 준비한 만성통증 맞춤클리닉의료진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서울 동부권 환자들의 통증을 소멸시키겠다"는 야심찬 의지로 봉사 현장을 후끈 달궜다. O, X로 풀어보는 통증의학 상식퀴즈, 접시 돌리기, 가상현실 운동체험 등은 환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은 물론 건강 지도 효과까지 염두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구강보건과 안과 검진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경품 추첨권에 도장을 받아 경품 응모의 기회를 잡았고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선물로 가져가는 행운도 잡았다.

경기도 수지에서 온 이선미 씨 가족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덕에 무료 진료도 받고 며칠 전 잃어버렸던 자전거를 대체할 새 자전거를 얻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의료 검진뿐만 아니라 요벨팝스 오케스트라, C채널 러빙유 합창단, 대건 합기도 공연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 봉사 현장.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환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직원들의 열린 마음이 코스모스축제를 찾은 시민들

Mini interview

김경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황금연휴를 반납하고 의료 봉사에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료소를 찾아 건강검진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건강한 삶에 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 동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상의 진료 서비스 제공, 의료 봉사와 같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나누며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양지현 씨 가족

"의정부에서 구리코스모스축제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건강검진이며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놀랐어요. 특히 직업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째 채원이는 약사 체험하면서 직접 약도 만들어 보고, 주사를 놓으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도 호기심이 생겼대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덕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 신경발달

부모는 궁금하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란다는 것은 감기와 같은 신체적 질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나이에 맞는 성장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포함한다. 키와 체중은 물론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다방면적 기능발달이 소아발달의 주 영역이기 때문이다. 신생아에서 청소년까지 건강한 발달단계의 특성과 문제는 무엇일까?

글. 문진화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엄마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0~12개월

갓 태어난 신생아는 기본적인 생리적 반사만을 갖고 있으며 외부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차츰 주변과 자신을 구분하며 엄마를 알아본다. 생후 1년 간의 운동 변화는 놀라워서 3~4개월이 되면 목을 가누고 7개월이면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되면 붙잡고 걷게 된다. 짧은 모음 소리는 2개월에 낼 수 있고, 4개월이면 소리 내어 웃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되면 엄마 또는 아빠를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발달과업 중 하나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일차적 양육자 또는 엄마에 대한 기본적 신뢰이다.

신경발달문제 비교적 흔한 문제로는 영아수면, 수유습관, 영아산통, 게우기, 낯가림, 속도의 차이에 따른 경한 운동지연 등이 있으며, 심한 문제로는 신생아 경련, 뇌기형, 영아연축, 뇌염, 뇌성마비, 눈맞춤 없음, 소리에 반응 없음 등이 있다.

걷고 뛰며 말하는 12~36개월

12~18개월 사이의 아기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탐색할 수 있게 되고, 흥미 있는 결과를 재현하기 위하여 장난감을 밟아보는 등 간단한 실험을 하기 시작한다. 24개월이 되면 잘 뛰어다니고 층계를 오르내릴 수 있다. 18~24개월에는 어휘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24개월경이 되면 간단한 문장을 말한다.

신경발달문제 흔히 떼쓰기, 분리불안, 난폭한 행동, 표현언어지연, 무호흡발작, 손가락 빨기,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말문이 트이지 않아 언어지연이 처음 발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외에 열성경련, 비열성경련(뇌전증), 뇌염, 근육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열성경련: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흔하며 열이 오르면서 갑자기 전신적으로 몸이 굳고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경련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대개 수 분 이내에 멈추지만 길어지면 응급실에 가야한다.

독립심이 생기는 36개월~만 5세

언어의 사용은 더욱 정교해진다. 만 3세가 되면 자기의 나이, 이름, 성별을 말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하려는 욕구가 생겨 마찰이 늘어날 수 있다. 만 3세에는 세발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고, 5세가 되면 줄넘기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놀이는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 마음껏 상상하며 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신경발달문제 열성(비열성) 경련, 뇌수막염, 어지럼증, 주기성 구토, 주기성 복통, 유분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언어지연: 아이가 두 돌이 되어도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지 못하거나 세 돌이 되어도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언어지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언어는 인지나 사회성발달과도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반적 발달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말문이 트이기까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왕성한 만 6세~11세

근육의 기능이 발달해서 농구, 춤추기 등의 정교한 운동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지발달이 뚜렷하고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가정은 물론 또래집단이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신경발달문제 야뇨증, 아경증, 몽유병, 뇌수막염, 두통, 틱, 주의력 장애(ADHD)가 발견될 수 있으며, 소발작과 같은 소아기 뇌전증과 학습장애, 정신지체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11세~18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차성징과 키가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점차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환상이나 이상에 몰입하기도 한다. 자율성을 추구하여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하며 또래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가 끝나는 무렵이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대와도 실제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신경발달문제 두통, 또래관계문제, 우울, 약물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척추측만증이 생기기 쉽다.

*두통: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신경학적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해지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면 두통이 생기기 쉽다. 최근에는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수면을 저해하고 목 근육을 긴장시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발달검사는 어디서?

전국민대상 영유아검진항목에는 간단한 영유아선별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이상항목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의뢰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정밀발달평가를 위한 신경발달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베일리발달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아청소년 지능검사와 인지평가, 주의력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아이 집중력은 몇 점?

□ 행동장애

품성과 행실이 바르고 단정함을 일컬어 품행방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이처럼 품행이 방정한 아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환경이 변한 탓도 있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른바 행동장애가 증가한 탓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 아이의 산만함, 행동장애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글. 안동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ADHD로 진단받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부모는 아이가 외동으로 온갖 귀여움을 받고 자란 탓에 버릇이 없다며 걱정을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방문했을 때, 부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리창을 통해 본 아이는 선생님 책상 바로 앞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뒤에 앉은 아이와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장난이 심하고 부산하여 맨 앞줄에 앉혔다고 했다. 부모는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고, 그럭저럭 일학년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학년이 되자 문제는 점점 커졌다.

다시 맨 앞줄에 앉게 되었고, 거의 매일 지적과 야단을 맞았고, 가끔은 체벌을 받기도 했다. 시험을 보면 열심히 준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틀리게 쓴 답과 심지어는 빼놓고 넘어간 문제도 있었다.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방학 중 서예를 가르쳤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고, 요즘은 야단을 치면 오히려 대들고 화를 내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점점 심해졌다.

외래에서 만난 아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이곳 저곳을 쳐다보고 만지는가 하면 몸을 비비 틀고, 지루해하며 차분히 앉아 있지를 못했다. 장난감도 한 가지를 가지고 놀기보다는 여러 개를 집적거리는 모습이었고, 소리를 많이 질러 크고 쉰 목소리를 냈다.

해답은 구체적인 약속과 약물 치료

의학적인 진단명은 행동장애 가운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였으며, 동시에 반항장애도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다. 부모에게 ADHD와 반항장애를 비롯해 연관된 원인, 경과, 치료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시행했다. 더불어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를 너무 제한하거나 야단치는 대신 과제와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했다.

부모와 행동수정요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집에서 아이가 가장 야단을 많이 맞는 행동과 언제 아이가 가장 잘 따라오는가를 알아오도록 했다. 어머니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숙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제일 야단을 맞고, 아버지가 칭찬을 해줄 때 아이가 가장 흐뭇해하며 말을 잘 듣는다고 했다.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야단을 맞지 않고 숙제를 해갈 것인가를 의논한 끝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 시간 정도 바깥에 나가서 논 후에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숙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주일간 이를 잘 수행하면 주말에 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당분간 어머니는 숙제에 관련해서만 아이에게 잔소리나 야단을 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체 상관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타임아웃으로 15분씩 꼼짝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기와 저녁시간 TV관람을 금하기로 했다.

어머니, 아이와 상담해가며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라고 하는 치료제를 아침에 한 알 반씩 먹도록 하였는데, 치료 시작 후 약 한 달이 지나면서 아이는 학교에서 지적도 훨씬 덜 받고, 받아쓰기 글씨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방학 동안 아이는 바깥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서예 학원에서도 짜증을 덜 내고 잘 지냈다. 개학 후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몰라보게 점잖아 졌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했다. 이제는 어머니가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스스로 짜놓은 계획에 따라 숙제를 하곤 한다.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때

행동장애란 이 아이와 같이 ADHD, 반항장애 그리고 나이 든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품행장애(흔히 비행)를 묶어서 말하는, 일반인들이 흔히 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병이다. ADHD는 선천적으로 뇌기능 가운데 자기억제(Self-inhibition)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으로 약물치료가 우선되고 부모상담, 행동치료 등이 병행된다.

집중력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항장애(지나치게 말을 듣지 않는 일종의 병), 그리고 심지어 더 나이가 들면 품행장애(비행)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반항 및 품행장애가 ADHD를 거치지 않더라도 또래의 영향, 가정불화, 양육상 문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수도 있다. 원인이 어떻든 이런 문제를 단지 말 안 듣는 아이, 못된 아이, 삐뚤어진 아이로 훈육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담이나 투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모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한다면 비록 타고난 문제라 할지라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아이의 가려움증 어떻게 극복할까?

□ 소아 아토피피부염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건조한 날씨는 가장 먼저 피부에 적신호를 보낸다. 국내 소아 연구 중 2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아토피피부염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증상은 가려움증. 손으로 심하게 긁은 상처는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부가적인 증상이다. 극한 가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소아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접근 방법을 살펴본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완치가 아닌 조절의 힘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재발하기 때문에 단순한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병변 부위는 삼출성으로 진물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는 피부의 각질화가 일어나 두꺼워진다. 가려워서 긁는 것 자체가 피부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 정리된 이론과 실제로 사용 가능한,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하고도 순응도가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은 '완치(cure)'의 개념이 아닌 '조절(control)'의 개념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환자의 가려움증-긁음-가려움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일이다. 따라서 피부염증의 치료와 보습 외에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이나 환경으로는 비누, 세제, 화학물질, 공해물질, 목욕용 수건, 극단적인 온도나 습도 등이 있다. 따라서 목욕용 비누는 지방제거기능이 적은 중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 산 옷은 잔류된 화학물질의 제거를 위해 한 번 빨아서 입도록 한다.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을 찾아라!

중등도 이상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40~60% 가량에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며, 원인이 되는 식품으로는 달걀, 우유, 땅콩, 대두, 밀가루 견과류, 생선, 갑각류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메밀도 주요한 식품 알레르겐이다. 따라서 일부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병력의 조사, 알레르기 피부시험, 혈청학적 검사, 식품 유발시험 등을 통하여 원인 식품을 밝혀내야 한다. 원인 식품의 제거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영양 장애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식품알레르기의 유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충도 고려할 수 있다.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예후는 환자의 피부 상태 및 자극 요인의 회피 정도, 그리고 알레르기의 동반 여부 및 세균 감염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은 어린 나이에 임상 증상이 심하고 만성화 병변이 지속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 유아기에 경미한 아토피피부염을 지닌 환자는 40% 정도에서 5세 이후에 호전되며, 84%의 환자가 성인이 되어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아기의 아토피피부염이 범발성이거나,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이 동반된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주 어린 나이에 아토피피부염이 시작된 경우, 여자 환자의 경우 등이다.

성장, 영양, 발달 과정을 고려할 것

소아 아토피피부염은 성인의 경우와 달리, 많은 경우 알레르기 행진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토피피부염을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의 30% 이상이 나이가 들수록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질환으로 전환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아기에 아토피피부염을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성장, 영양, 발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과다한 연고제의 사용이나 과도한 식이요법 등은 소아 성장에 금물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인 것이다. 소아 아토피피부염을 단순한 피부염이나 성인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여 치료하는 것은 소아 아토피피부염을 접하면서 주의해야 할 요점 중 하나이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보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썼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스로 얼음물 세례를 받았다. 세계 유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행처럼 번진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는 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벤트다. 세계적인 관심 속 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양대학교병원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글. 황원희 사진. 정준택

환자 중심의 공간을 실현하다

"아버님, 제가 말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똑같이 말씀해보세요. 비행기, 연필, 달력."

"비행기……. 달력."

"잘 듣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행기, 연필, 달력."

"비행기……. 달력."

매주 화요일은 난치성 치매 환자를 위한 진료가 있는 날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서관 7층에 자리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이하 세포치료센터)에서는 난치성질환 환자만을 위한 상담과 진료가 이어진다. 세포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의료진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올해 초 병동을 개조해 독립적인 세포치료센터를 만들면서 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진료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 그 틀을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요일별 다학제적 진료 시스템입니다. 가령 월요일은 루게릭병 클리닉, 화요일은 난치성 치매 클리닉, 수요일은 간질환 클리닉 이런 식으로요. 그 날만큼은 담당 의료진과 환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해당 요일이 되면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가정관리사, 사회복지사가 클리닉에 참석한다. 특히 김승현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루게릭병 클리닉에서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교실 및 자가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루게릭병 환자와 가족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간호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상담교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이 참여하는 자가관리 프로그램 역시 매달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세포치료센터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세포치료센터의 요일별 질환 관리와 다학제적 진료 시스템은 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깨어있는 감각, 마비되는 운동 신경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세포치료센터는 난치성질환 전반에 걸친 줄기세포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사업 대상자로 한양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난치성질환 중 운동 신경의 마비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은 김승현 교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일명 루게릭병은 급속형 희귀 난치성질환입니다. 의식과 감각은 온전하지만 운동 신경의 마비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무서운 병이죠. 일례로 루게릭병 환자의 팔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으면 환자는 파리의 존재를 의식할 수는 있으나 팔에서 날아가도록 팔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과 달리 진행 속도가 빨라 발병 후 3~5년이 지나면 호흡이 어렵고, 음식물도 삼키지 못해요. 인구 10만 명 가운데 2명 이하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에도 속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루게릭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통해 시판되고 있는 루게릭병 치료제는 릴루졸(Riluzole) 하나뿐이다. 사실 릴루졸이 만족할만한 치료제라면 더 이상의 개발이 무의미하겠지만 릴루졸은 특정한 환자 군에 한해 수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승인되었다. 부작용도 많고, 의료보험 수가 역시 국한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들이 쏟아져 나와요. 모두 실패로 돌아가지만요. 한 가지의 생물학적 지표가 아닌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상 오랜 시간 작용기전을 연구해야 적용 가능 여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줄기세포치료제의 윤곽이 들어나는 거죠."

줄기세포치료제, 희망을 말하다

올해 초, 세포치료센터는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인 '뉴로나타-알'

을 개발했다. 6개월 이상의 평가를 거쳐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로서 정식 품목 허가와 시판 허가를 받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임상 연구 가운데 확정 임상은 아니지만 가장 대규모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임상 연구에요. 36번 이상의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치료제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확인했죠. 올해 말쯤에는 정식으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원자재의 구입부터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필요조건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규격과 안전성은 무균, 환풍, 통로 등 시설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병원 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다.

김승현 교수는 병원특성화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코아스템'과 공동연구원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덕분에 세포 공급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다.

"국내 연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이에 걸맞은 수준을 갖추기 위해 식약처는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거든요. 오히려 외국의 기준보다 국내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규정이 엄격한 만큼 연구를 위한 지원도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다시 연구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의 시판을 앞두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곱절의 시간이 요구된다.

"아이폰을 보세요. 초기의 아이폰부터 최근 출시된 아이폰 6까지, 오랜 시간 수 많은 연구와 실패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기계의 발전이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적용되는 치료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김승현 교수는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현재 상태로는 100% 만족할만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병 자체의 진행 속도가 빨라 절망감도 빨리 올 테죠.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예후가 다르다는 보고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제약되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보람된 생활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 분은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몇 달에 한 번씩 바닷가를 찾아요. 눈을 못 뜨는 대신 바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세포치료센터는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연구의 힘이 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선사할 희망을 알기 때문이다. 난치(難治)는 글자 그대로 병을 고치기 조금 어려울 뿐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不治)는 아니다. 세포치료센터는 그 어려움을 쉬움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센터는 현재 루게릭병 클리닉, 파킨슨 클리닉, 루푸스 클리닉, 간질환 클리닉, 뇌손상 클리닉, 소아 뇌성마비 클리닉, 난치성 치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요일별로 각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으며, 루게릭병 클리닉의 경우 국내 추정 환자수 1,500명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등록되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장소 : 한양대학교병원 서관 7층 **문의** : 02-2290-9367,9377

tvN 드라마 〈아홉수 소년〉 육성재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기의 아홉수에도 사랑은 있다

아홉은 오묘한 숫자다. 여덟에 하나를 더해 많아 보이기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로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수. 예로부터 9, 19, 29, 39와 같이 아홉을 품은 아홉수의 인생, 특히 남자 나이에 이 수가 들면 결혼이나 이사와 같은 일을 꺼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랑을 한다. 오묘한 아홉수에 빠진 네 명의 남자는 오늘도 가장 찬란한 로맨스를 꿈꾼다.

글. 황원희 사진. tvN

풋풋한 사랑 앞에 선 아홉수 소년들

한 지붕 아래 네 명의 남자가 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나이는 9살, 19살, 29살, 39살. 때문에 집안의 정신적 지주인 구복자(김미경) 여사는 아홉수에 빠진 남자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 보살님을 찾는다. 그러나 제대로 마가 낀 네 남자의 로맨스는 언제나 바람 잘 날이 없다.

집안의 막내인 9살 강동구(최로운)는 잘 나가던 국민 귀요미였지만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몹쓸 기억으로 연예인병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유일한 인기 비결이었던 귀여움 마저 사라지며 발연기만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되었다. 인생의 1/4을 함께한 아역스타 장백지(이채미)와 3년째 비밀연애 중이지만 동구는 한결같은 백지가 슬슬 지겨워진다. 그러던 중 그의 앞에 사랑의 라이벌인 도민준이 등장하고 그들의 사랑은 알 수 없는 삼각관계로 변해간다.

삼형제 중 둘째인 열혈 청춘 강민구(육성재)는 19살의 전도 유망한 유도 선수이다. 그러나 중요한 시합 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시합을 망친다. 우울한 민구 앞에 운명처럼 아리따운 소녀 한수아(박초롱)가 나타나고, 민구는 그녀와의 만남이 운명임을 직감한다. 운명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그의 연애관은 감수성 충만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집에서는 '호랑말코' 소리를 듣는 철없는 아들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그의 사랑만큼은 언제나 진지하다.

잊고 싶은 과거, 잊지 못하는 사랑

아홉수 집안의 장남인 강진구(김영광)는 서른을 앞둔 29살이자 직장인 사춘기에 접어든다는 입사 3년 차의 여행사 직원이다. 걱정과 고민이 절정에 다다를 시기이지만 훈훈한 얼굴에 착한 몸매를 가진 그에게 여자만큼은 그저 흘러가는 강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타고난 신체조건으로 연애에 있어서는 결코 작아진 적 없는 그에게도 아홉수의 시련은 닥쳐왔다. 진구는 여행사 입사 동기인 마세영(경수진)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세영은 진구를 그저 여느 동기와 다름없이 대한다. 이미 세영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 경험이 있는 진구는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생애 최초로 짝사랑을 시작한 29살 청년의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마지막 아홉수인 39세 노총각 구광수(오정세)는 삼형제의 삼촌이자, 구복자 여사의 남동생이다. 예기치 못한 방송사고 후 잘 나가던 음악 PD에서 별 볼일 없는 예능 PD로 전락한다.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인 광수는 10년 전 자신에게 처참하게 이별을 고했던 그녀 주다인(유다인)을 이웃주민으로 다시 만나며 옛 사랑을 추억한다. 그러나 싱글맘으로 돌아온 그녀의 곁에는 다인을 꼭 빼닮은 어여쁜 딸이 하나 있다. 그래도 광수는 궁금하다. 10년 전 그녀의 마음이, 그리고 현재 그녀의 마음이.

세상 두려울 것 없던 네 남자의 인생 앞에 애틋함과 아픔이 공존하는 사랑이 찾아왔다. 그들의 사랑이 아픈 건 단순히 아홉수 때문일까? 아홉수가 지나면 이 사랑은 치유될 수 있을까?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지금 필요한 건

불안과 갈등의 반응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로 인해 복통, 복부 팽만감 같은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동시에 설사나 변비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 방법도 알기 어렵다. 다만 여러 기질적 질환을 제외한 후 진단에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체중감소나 야간에 잠에서 깨어남, 대장암이나 염증성 대장 질환의 가족력 및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므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50세 이상에서 새로 발생한 경우나 장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배변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완치'보다는 '관리'

치료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수 있다. 일단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생은 그야말로 시합이나 시험 같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니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당히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나 휴식 등이 필요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평생 약을 복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합이나 시험을 앞둔 경우에는 미리 약물을 복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상에 따른 관리

장관의 운동과 감각을 자극하는 특정 음식이 있는지 조사하여 섭취를 피하고, 과도한 지방의 섭취나 유제품, 초콜릿, 카페인, 알코올 등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발효식품인 강낭콩, 완두와 같은 콩류 및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식이성 섬유의 섭취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환자교육 및 식이요법 등의 비 약물요법을 해보고 이에 호전이 없는 경우 증상에 따라 약물 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약물치료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개선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게 된다. 약물 치료 외에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요법도 도움이 된다.

이항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신경'만 맑은수병원 신경 씁니다

맑은수병원의 수(首)는 '머리'를 의미하지만 '첫째, 으뜸'이라는 뜻도 함께 지닌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맑은수병원은 그 이름처럼 국내 최초 신경과 특성화 병원으로 개원했다. 뇌졸중 · 치매 등 중증 진료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까지 신경에 관한 맞춤형 전문 의료시스템을 갖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경과 중점진료병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맑은수병원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6명의 전문 의료진과 110여 명의 직원, 200여 병상의 규모를 지닌 대형병원 같은 동네병원이다.

맑은수병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31-6, 9 ■문의 : 02-2681-0119 ■홈페이지 : http://www.cleansu.co.kr

200병상 규모의 한국형 온돌마루 입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까지 역임한 맑은수병원 윤응용 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특화되지 않은 신경과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퇴행성 치매 등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병원은 많지만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두루 검진하고 진료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병원은 국내에 전무했기 때문이다.

"신경과와 더불어 내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구성해 각종 질환에 대한 맞춤형 협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 병원의 큰 장점입니다."

환자들을 향한 배려는 200병상 규모의 입원실에서부터 확실하게 느껴진다. 맑은수병원의 병실은 모두 한국형 온돌마루로 되어 있다. 맑은수병원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질환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높은 적응률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온돌마루 덕분이다.

맑은수병원은 신경계 질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진단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뇌혈류 검사기, 뇌파 검사기, 뇌 CT검사기 등 대형병원 부럽지 않은 의료장비는 노인성 질환을 넘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 손발저림으로 고통 받아온 환자들에게 명확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 한다.

"어르신들만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통이나 손발저림을 겪는 젊은층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통해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뇌신경계 질환은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할 터, 맑은수병원은 뇌질환 조기진단 프로그램과 통증, 치매관련 각종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특히 월, 수, 금요일 매주 3회에 걸쳐 운영되는 치매 클리닉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경력을 지닌 윤응용 원장이 직접 이끈다.

보건복지부 지정 '신경과 전문병원' 목표 삼아

맑은수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윤응용 원장을 포함해 여섯 명의 전문의가 모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꼭 그래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검증된 전문의를 뽑아야 했습니다. 경력이나 면접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함께 일해본 분들의 추천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로만 구성이 됐네요. 모두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라 분위기도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18곳의 대형 종합병원과 협력병원을 맺고 있는 맑은수병원이 특별히 한양대학교병원과 돈독한 이유도 알만 하다. 한양대학교병원까지 자동차로 10분이면 도착해 응급환자 이송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 대부분이 선·후배인 경우가 많아 소통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초를 다투는 뇌출혈 환자들이 원-스톱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 이송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든 환자 분들이다 보니 장이 꼬인다거나 담석·담낭 수술이 필요할 때에도 한양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발견된 환자분들도 많이 가시고요. 협력병원으로 연결되는 전체 환자 중 1/3 이상이 한양대학교병원일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맑은수병원의 목표는 앞으로 2~3년 안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신경과 전문병원'이 되는 것이다. 신경과 학계에서도 맑은수병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신경과 전문의를 한 명 더 충원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뇌신경계 전문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훌륭한 의료진과 직원들이 있기에 목표 달성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진료와 친절은 기본이고, 환자와 보호자 분들께 진정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DR. OPERA

미완의 작품 미완의 사랑

자크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Jacques Offenbach Opera <Des contes d'Hoffmann>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는 독일 작가 호프만의 〈세 개의 사랑이야기〉를 대본가 카레와 바르비에가 3막짜리 대본으로 쓴 것으로, 오펜바흐가 수년간 착상한 끝에 작곡한 작품이다. 하지만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자 오펜바흐는 연습 도중 쓰러져 미완성인 작품을 남긴 채 정작 초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피아노 악보는 완전히 끝냈지만 오케스트레이션 된 것은 프롤로그와 제1막뿐이었다. 그 후 미완성 부분을 친구 에른스트 기로가 완성하게 된다.

오펜바흐는 독일에서 출생, 프랑스로 귀화한 작곡가이다. 14세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여 첼로를 전공한 후 오페라 관현악 단원으로 활동하다 24세에 극장 관현악단 악장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오페라보다 가벼운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을 발표해 유명해졌고, 이 후 오페레타를 포함한 90여 곡을 작곡하면서 오페레타의 창시자가 된다. 그는 단지 노래의 선율뿐만 아니라 중간음역의 현이나 목관의 독주, 왈츠나 캉캉과 같은 춤곡을 삽입하면서 당시 프랑스 오페라에 새 혁신을 일으켰다.

시인이고 작곡가이자 공무원이었던 작가 호프만은 낮에는 관청에 근무했지만 밤에는 술집에서 예술을 논하고 한밤중에는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은 모두 환상과 괴기로 가득 차 있으며,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단편소설 중 〈모래 사나이〉, 〈영상을 판 사나이〉, 〈크레스펠 고문관〉 등 세 작품을 섞어 만든 것이다. 〈호프만의 이야기〉는 시인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에 끼워 넣은 옴니버스 스타일의 이야기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4개 도시를 무대로 삼고 있으며 각기 성격과 노래는 다르나 사랑은 하나이며 결말은 불행하다. 즉 맹목적인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사랑인 스텔라에 빠져 있는 호프만이 겪은 세 가지 사랑은 미모의 기계인형인 '올랭피아에 대한 사랑', 영혼을 팔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파멸에 이르는 베네치아의 창녀인 '줄리에타에 대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나 결국 노래를 너무 불러 죽게 된 '안토니아에 대한 사랑'이다. 비록 흥미롭고 슬픈 사랑 이야기지만 그는 제시한 사랑들을 삶이 아닌 예술로 보라고 권한다.

프롤로그 뉘른베르크의 루테프 술집. 독일 뉘른베르크의 술집에서 시인 호프만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연애담을 들려주고 있다. 그는 지방극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옛 연인 스텔라로부터 편지를 받고 이곳에 왔다. 친구 니콜라우스와 함께 학생들과 어울려 노래를 끝내고 자신이 경험한 세 가지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말한다. 호프만은 기분이 좋아 "나의 첫사랑은 올랭피아"라며 노래를 부른다. 일단 막이 내리고 첫 번째 사랑의 무대가 막이 오른다.

제1막 스파란자니의 집. 스파란자니는 '올랭피아'란 인형을 만들었는데 노래와 춤을 잘 추지만 '네', '아니오' 밖에 할 줄 모른다. 호프만이 들어오자 스파란자니는 이 인형이 자신의 딸이라며 소개한다. 호프만은 첫눈에 반한다. 니콜라우스가 그것은 인형이라는 것을 알려 주지만 믿지 않는다. 인형은 노래를 부르지만 박자가 안 맞으며, 태엽 감는 소리가 들린다. 스파란자니가 퇴장하자 호프만은 올랭피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 호프만이 올랭피아와 함께 춤을 추자 점차 빨라지는데 멈춰지지 않고 결국 쓰러져 버린다. 반복된 동작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자 스파란자니와 조수 코펠리우스가 싸우면서 인형을 깨뜨리자 호프만은 실망하고 막이 내린다.

제2막 베니스에 있는 줄리에타의 저택. 창녀 줄리에타는 호프만을 사로잡으려고 마술사 다페르투토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녀에겐 쉬레밀이라는 정부가 있지만 호프만을 유혹한다. 친구 니콜라우스도 그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때 줄리에타와 니콜라우스가 유명한 아리아 '호프만의 뱃노래'를 노래한다. 호프만은 쉬레밀과 결투하게 되는데, 다페르투토가 마법의 칼을 호프만에게 주어 상대를 찔러 죽인다. 호프만이 급히 그녀의 방 발코니에 올라가자 줄리에타는 이미 달빛 아래 곤돌라를 타고 다페르투토의 팔에 기대어 떠나고 있다.

제3막 뮌헨의 고문관 크레스펠의 집. 벽에는 죽은 아내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그의 딸 안토니아도 어머니처럼 소프라노 가수이지만 폐병 때문에 노래를 금하고 있다. 그녀가 호프만을 사모하는 로망스를 노래하자 아버지 크레스펠은 집사 프란츠에게 누구에게도 병실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나간다. 그러나 귀먹은 프란츠는 호프만에게 돈을 받고 그를 들여보낸다.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눈다. 그때 크레스펠이 돌아오자 호프만은 숨는다. 뒤이어 악질 의사 미라켈이 등장한다. 그의 모습을 본 크레스펠은 딸 또한 그의 마술에 걸릴까 근심하고 있다. 둘의 대화를 들은 호프만은 안토니아가 병실에 갇혀있는 이유를 알게 된다. 그들이 나가자 호프만은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한다. 다시 미라켈 박사가 들어와 그녀에게 노래를 권한다. 그녀가 노래를 하자 미라켈 박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을 불러내 노래하라고 강요한다. 그녀는 다시 노래한다. 계속 노래하자 결국 힘이 없어 쓰러진다. 크레스펠이 달려와 호프만에게 화내며 소리치자, 미라켈이 나타나 기쁜 듯이 "죽었어"라고 외치며 막이 내린다.

에필로그 뉘른베르크의 루테프 술집. 호프만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호프만은 지금까지 사랑한 세 여자는 하나이며, 그녀는 '스텔라'라고 말하고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깊은 잠이 든다. 꿈에 여신이 나타나 "지상의 연인은 모두 너를 버렸다. 이제 내 뒤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돈 많은 린도르프는 스텔라를 매수하여 나타난다. 그는 호프만을 경멸하듯 손가락질하고, 스텔라는 그가 준 꽃을 던지고 떠난다.

들을만한 Album

리차드 보닝(지휘), 플라치도 도밍고(호프만), 조안 서덜랜드(4명의 여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Decca, 1971)

앙드레 클뤼탕스(지휘), 니콜라이 게다(호프만), 당첼로(올랭피아),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줄리에타), 로스 앙헬레스(안토니아), 파리음악원 오케스트라(EMI, 1964)

제프리 테이트(지휘), 프란시스코 아라이자(호프만), 제시 노먼(올랭피아), 셰릴 스튜더(줄리에타), 안네 소피 폰 오터(안토니아), 드레스덴 국립 오케스트라(Decca, 1987)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R.MOVIE

굿 바이 마이 캡틴 로빈 윌리엄스

& 2014년 눈을 감은 영화인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달이 비슷한 봉급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대다수 월급쟁이에게 다른 이의 삶과 직업을 대신 살아가는 배우란 최고의 프리랜서이자 난해한 직업일 것이다. 무릇 배우란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여 인지도를 높여야만 출연기회를 보장받게 되므로 인기라는 마약에 스스로를 어느 정도 길들여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에서 조연으로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스타가 아닌 배우라는 진정한 직함을 가질 수 있다.

맥켄드릭은 그의 저서 '영화수업'에서 연기는 일종의 의식의 괴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하고 신기한 기술로서 배우는 환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층위에서는 다른 감각의 차원, 즉 가상의 세계 밖에 놓여 있는 실재에 대한 감각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은 배우의 역할에 대해 작품을 이해할 필요도 없이 카메라가 담아내는 미장센만 이루면 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일반적으로 배우는 혹독하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된 반사신경이 필요하다. 배우는 이런 기술을 철저히 숙지해야만 미리 계산된 듯한 느낌 없이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몸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고 무의식적이거나 최소한 자의식이라도 없어야 한다. 결국 좋은 배우란 자신의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문법 안에서 감정표현을 물 흐르듯 유연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낙천적이었고 유머의 힘을 믿었으며 낮지만 빠른 목소리와 발달된 하관으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코미디언, 그러나 눈만은 웃지 않았던 로빈 윌리엄스가 지난 8월 타계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늘 혼자였기에 그의 유머감각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만 쓰였고 어릴 때의 고독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얼굴에 그늘을 남겼다. 물리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속내는 미처 자라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처럼 영화 속에서의 그는 공인된 부적응자였다.

네버랜드에서 나와 홀로 나이를 먹고 이전의 기억을 잊어 버린 피터팬은 〈후크〉 선장을 물리치고 가족을 되찾기 위해 동심을 회복하려 한다. 게임 속에 갇혀 나이를 먹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26년간 봉인되었던 앨런은 〈쥬만지〉를 끝내기 위해 최후의 주사위를 던진다.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불량품이 되어 호기심과 감정을 가지게 된 로봇 앤드류는 무표정한 표정을 버리고 사랑을 찾기 위해 기꺼이 영생을 포기하고 수술대에 오른다. 조로증을 앓는 덩치 큰 〈잭〉은 어른의 몸에 갇혀 엄마보다 늙은 모습을 한 아이에서 멈추기 위해 천진난만하게 애쓰지만 속절없다. 〈굿 윌 헌팅〉에서 상처를 가진 학생 윌 헌팅을 보듬으며 그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심리학 교수 숀의 역할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과의 투쟁을 위한 살아있는 교범이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주기 위해 교과서의 목차를 찢던 키팅 선생이 퇴출당할 때 학생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멀리, 다르게 보라는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며 월트 휘트먼의 시를 읊는다. "오 캡틴 마이 캡틴"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장미봉우리를 거두라"는 뜻의 카르페 디엠과 더불어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의 독특함을 믿어야 한다고 설파한 인생의 선장은 알코올과 코카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페리가 온 힘을 다해 매달리는 존재는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인터뷰를 시도하는 작가 〈카포티〉였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만다. 주연으로 딱히 떠 오르는 역할이 없던 털보의 육중한 천상 조연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미션 임파서블 3〉를 통해 기억될 악인으로 비로소 알려졌다. 항상 억압되고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감정을 폭발시킬 기회만 찾던 카인과 아벨의 불만 많은 형처럼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약물남용으로 사망하였다.

젊은 시절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배우 중에서도 몇 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탈주〉에서의 늠름한 영국장교, 〈34번가의 기적〉에서의 온화한 산타 클로스, 〈쥬라기 공원〉에서 공룡의 손에서 위태로워진 손주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억만장자 존 해몬드 역할을 맡았던 영국의 정통파 영화인 리차드 아텐보로도 그 중 한 명이다. 또한 유럽을 대표했던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그 자신은 철저한 반 나치주의자였지만 맡은 역은 〈머나먼 다리〉, 〈철십자훈장〉, 〈오뎃사 파일〉 등의 전쟁물에서 독일군 장교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기품 있는 배우 막시밀리안 쉘도 유명을 달리했다. 〈뉘른베르크의 재판〉에서 보여준 인간미와 지성미 넘친 변호사 역은 시대를 뛰어넘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마카로니 웨스턴 〈석양의 무법자〉 주인공은 "The Good"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지만 끝까지 비굴하게 살아남아 질긴 생명력을 보였던 "The Ugly" 투코는 실지로 90살이 넘어서까지 연기를 했던 성격파 배우 일라이 월러크였다.

카이에 뒤 시네마의 열풍 속에 프랑스의 1950년대는 누벨바그로 대표되는 감독들이 득세했지만 마르셀 프루스트를 탐독한 알랭 레네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간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미지를 덧씌우는 자의식 과잉의 작품을 2013년까지도 출품하였다. 〈지난해 마리앙바드에서〉, 〈뮤리엘〉, 〈히로시마 내사랑〉은 모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자유분방함 속에서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아의 지경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영화는 거의 전적으로 소재에 대한 감독의 접근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독은 해석하는 예술가가 되는 셈이다. 영화는 연극과 달리 막이 올라도 배우가 극의 전개를 주도할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감정을 고조할 필요도 없다. 헨리 폰다의 "현실 생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연기한다"란 말은 영화배우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의 감정에 불을 붙였다 껐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의 작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지닌 페르소나로서의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배우는 대중의 신화로서 스타성을 획득하든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바대로 확고한 연기관을 가지던 간에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로 인해 생물학적인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별이라는 존재감을 지닐 수 있다.

로빈 윌리엄스's Movie

바이센테니얼 맨(1999)
감독 : 크리스 콜럼버스
출연 : 로빈 윌리엄스, 엠베스 데이비츠

잭(1996)
감독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출연 : 로빈 윌리엄스, 다이안 레인

죽은 시인의 사회(1990)
감독 : 피터 위어
출연 : 로빈 윌리엄스, 에단 호크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돌고 돌아서 만난 내 인생 최고의 의사 선생님"

급성 신우신염과 만성 신부전 치료 후 일상을 찾은 이선구 님의 편지

지병이었던 당뇨와 고혈압, 갑상선에 이어 급성신우신염과 신부전까지… 장기간 병원 치료와 약으로 힘겨웠던 이선구 님에게 한양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근호 교수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닫힌 마음과 편견을 깨 준 고마운 사람이다. 네 차례 혈액 투석의 마지막 날, 그녀는 우울함으로 치료마저 거부했던 자신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건넨 김근호 교수와 의료진을 잊지 못한다. 정리. 곽한나 사진. 정준택

고마운 김근호 교수님께

한양대학교병원 김근호 교수님께 치료를 받게 되어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평소 몸이 약한데다가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고혈압에 갑상선, 당뇨병까지 앓아왔어요. 작년 9월 말, 체중이 갑자기 줄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서 두 달 넘게 기침이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줄 알았는데 도통 낫지 않아서 집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피검사와 CT검사에서 여전히 원인을 모르는 이상 소견이 나왔죠. 더 이상 그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던 차에 오래 왕래했던 개인병원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신부전과 급성신우신염이라는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근호 교수님을 만난 덕분이에요.

교수님은 첫인상부터 편안했어요. 내로라하는 대형병원도 여러 차례 다녀봤지만 김근호 교수님만큼 소통이 잘 되는 분은 없었죠. 매일 두 번씩 회진을 오실 때마다 제가 궁금해 할 것들을 미리 알고 이야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의 의견도 물으시고, 자연스레 교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지난 8월 1일 한양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했을 때 휴가 중에도 하루 한 번씩 꼭 찾아와 주셨죠. 주말인 일요일에도 찾아와 주셨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교수님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근호 교수님께 치료받는 분들은 교수님이 참 자상하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해요.

김근호 교수님과 더불어 17층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입원할 때마다 다른 층을 권유 받아도 17층을 고집하는 이유는 17층의 의료진 여러분 모두가 참 친절하시기 때문이에요.

한양대학교병원은 의료진도 외모를 보고 뽑으시나요? 신장내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내과, 피부과, 비뇨기과도 다 가봤지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잘생기고 예쁘신 것 같아요. 언제나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니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서 몸이 회복되면 여행을 다녀보고 싶어요. 국내도 좋지만 스위스 알프스 같은 유럽 쪽으로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 덕분에 소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니다.

2014년 가을이 물드는 날,
이선구 드림

이선구 님에게

제가 보기에 이선구 님은 여전히 소녀와 같은 감성을 지니고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제가 가끔 병의 예후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전할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주치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투병 생활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넓게 보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김근호 교수

효능만큼은 특급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의 한 종류였던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에서 품종이 개량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가 먹는 송이처럼 생긴 초록색 부위는 약 7만 개 이상의 꽃눈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이다. 이 수많은 꽃눈이 모여 만들어내는 효능은 브로콜리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글. 전진 도움말. 정민성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강경화 한양대학교병원 영양사

꽃보다 팔방미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라틴어로 가지를 의미하며 작은 가지들이 모여 큰 꽃송이가 된다는 뜻이다. 꽃눈이 빽빽하게 모여 탄생한 브로콜리답게 그 효능 또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려진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것.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배추과 채소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로콜리 100g당 비타민 C 98mg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브로콜리 두세 송이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때 필수적인 플라보노이드도 함유되어 있으며,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몸에 쌓이는 유해산소를 없애 노화를 억제하고 암, 심장병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은 물론 미국 존스홉킨스 분자약물학자인 폴 탈라레이 박사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을 바르고 높은 강도의 자외선에 노출해본 결과 피부 홍반과 염증이 37%까지 줄어들고,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최대 78%까지 효능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소재한 베일로대학 의대의 H. 다니엘 라코라자 박사 연구팀의 연구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세포들의 수치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설포라판은 기도에서도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켜 오염된 대기, 꽃가루, 담배 연기, 배기가스 등에 들어 있는 프리래디칼이 산화되어 유발할 수 있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호흡기 염증 예방에도 좋다. 이 밖에도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설포라판이 혈관을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늘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은 줄여 심혈관을 보호한다고 한다.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4배나 높은 칼슘과 비타민 K 때문에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 되고 골다공증도 예방한다. 수용성 섬유질도 풍부해 몸 속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으며, 100g당 28kcal의 열량밖에 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주고 변비를 방지하며 혈당을 낮게 유지시켜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브로콜리는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항암작용을 높이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참기름으로 볶거나 참깨와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오렌지와 곁들이면 비타민 C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정민성 외과 교수가 추천하는 수퍼푸드

브로콜리는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일 등과 같이 꽃이 십자 모양으로 형성된 십자화과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콜리는 가히 채소의 왕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다양하고 유익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 C는 레몬의 2배이고, 비타민 A를 비롯하여 B_1, B_2, 칼륨, 인,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도 다른 채소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들어 있고, 동맥경화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물성 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Sulforaphane)과 인돌-3-카비놀(lindole-3-carbinol) 화합물이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상당한 항암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 입니다. 브로콜리를 지나치게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항암효과가 약화되기 쉬우므로 조리 시 가볍게 삶은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브로콜리 스프

재료 : 브로콜리 1개, 생크림 250ml, 우유 600ml, 양파 1개, 버터 2조각

만들기 : □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건져 깨끗한 물에 씻은 후 건져 놓는다. □ 양파와 브로콜리를 다진다. □ 냄비에 버터를 녹여 브로콜리와 양파를 볶는다. □ 어느 정도 익으면 생크림을 넣고 익힌 후 우유를 부어 끓여준다.

브로콜리 샐러드

재료 : 브로콜리 1개, 게맛살 1팩, 마요네즈, 머스터드

만들기 : □ 브로콜리를 식초물에 살짝 담갔다가 건져 깨끗한 물에 씻은 후 건져 놓는다. □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1분 정도 살짝 데쳐 찬물에 씻어 건져 놓는다. □ 게맛살을 먹기 좋게 썰어 브로콜리와 함께 마요네즈와 머스터드를 넣고 버무린 후 접시에 담는다.

한양대학교의료원

2014년 후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25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14년 후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해 11명의 정년퇴임자 모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박충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며,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본원은 지난 9월 22일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1층 로비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박충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도약에 기부자 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무엇보다 든든하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가로 7. 8m, 세로 2.5m의 규격으로 일천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President's Honor Club', 'Gold Honor Club', 'Prestige', 'Partner'로 분류해 동판에 새겼다.

한양대학교병원

제천서울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본원은 지난 7월 24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제천서울병원 서관 대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료 및 교육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

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1984년 개원한 제천서울병원은 14개 진료과, 298병상, 25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충북 북부지역의 대표병원이다.

'대장 앎의 달'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1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대장 앎의 달'을 맞이하여 '대장암 장기 생존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외과 안병규 교수가 '대장암 장기 생존자들의 건강관리', 정민성 교수가 '장기 생존자들의 유방암, 갑상선암 관리', 산부인과 이원무 교수가 '장기 생존자들의 부인과 암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도전과 열정 콘서트' 주제로 인문학 강좌

본원은 지난 9월 24일 본교 계단강의동 4층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전과 열정 콘서트'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 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이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과 2015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도전과 열정 정신의 변화를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본교 경제금융학부 재학생들, 사랑의 후원금 전달

본원은 지난 10월 13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사랑의 실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본교 경제금융학부 재학생들이 교내 축제기간 동안 '사랑의 실천 후원 모금행사'를 통해 모은 기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세현 학생 외 9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장내과,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 100례 달성

본원은 지난 7월 25일 '사랑의 실천홀'에서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기생리학검사 및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 100례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회를 열었다.

김경헌 병원장은 "심장내과의 모든 교직원의 열성으로 구리, 남양주 지역 최초로 부정맥시술 100례를 달성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김순길 심장내과 과장은 "부정맥시술 100례 달성은 심장내과 전 교직원들과 병원의 많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구리시보건소 건강강좌

본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8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이

비인후과 정진혁 교수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안전하고 올바른 미용성형' 구리 롯데백화점 건강강좌

본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8월 25일 구리 롯데백화점 9층 문화센터에서 성형외과 이장현 교수의 '안전하고 올바른 미용성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남원시와 업무협약 체결

본원과 남원시는 지난 8월 29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 시민에게 진료편의 및 의료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남원시는 쌀을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의 판촉행사 등을 지원해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슴통증, 흉통의 원인' 구리시보건소 건강강좌

본원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12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의 '가슴통증, 흉통의 원인은?'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아토피피부염' 구리 롯데백화점 건강강좌

본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9월 16일 구리 롯데백화점 9층 문화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아토피 피부염'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오재원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급격한 실내온도와 습도의 변화, 땀이나 침, 꽉 끼는 옷,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는 것, 세균 등이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자극이 있을 때마다 가볍게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두드리듯 닦아준 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어 그 부위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간호국 전 직원 야유회

본원 간호국은 지난 9월 27일 동구릉에서 '간호국 전 직원 야유회'를 가졌다. 윤영선 간호국장은 "이번 행사는 2013년도 '간호국 비전 선포식' 이후 열정과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다양한 성과를 일구어낸 간호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개최한 뜻 깊은 행사"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간호국 직원 총 120명이 참여하여 동구릉의 아름다운 숲길을 함께 걸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14 구리 코스모스 축제' 행사 참여

본원은 지난 10월 4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축제인 '2014 구리 코스모스 축제' 건강체험한마당에서 대규모 의료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3개의 테마로 구성된 '건강체험한마당' 체험관에서 200여 명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뇌혈류 측정 검사, 골다공증 검사, 체지방 분석, 안과 검진 등을 시행하고, 의사□간호사□약사 체험, 올바른 양치 습관 등의 다양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건강체험한마당 중앙무대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HY밴드 동아리의 멋진 공연과 요벨팝스 오케스트라, 합기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고,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간호국 인문학 강좌 열어

본원 간호국은 지난 10월 16일 '삶, 직업, 직장'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훤겸 기획관리실장은 "문학에 대한 소개와 병원직원으로서 삶의 목표, 비전, 직업관을 제시하고 소통하며 답을 내는 병원이 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윤영선 간호국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병원 발전에 필요한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되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본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CRCRA)'는 지난 10월 17일 본교 HIT 6층에서 '제6회 CRCRA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Marking an epoch in clinical research for RA: Paving the way for up and comers'라는 주제로 류마티스관절염의 현재와 임상연구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구 방향에 대한 학술적인 교류를 가졌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국제병원, 개원 11주년 기념식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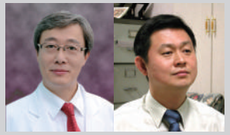
본원은 지난 9월 26일 로비에서 개원 1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충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고용 국제병원장, 윤호주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사, 동정

이영호 교수 국제혈액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는 지난 9월 4일에서 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5차 국제혈액학회에 초청되어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제대혈이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혁 교수·김경수 교수 중국 연변의대서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김혁 교수와 심장내과 김경수 교수가 지난 9월 20일 중국 길림성 연변의대 종합부속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과 협심증'에 대해 초청 강연했다. 김혁 교수는 '심장판막질환의 외과적치료'를 주제로, 김경수 교수는 '협심증의 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용천 교수 환태평양정신의학회 부회장 선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가 지난 10월 5일에서 7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환태평양정신의학회에서 2년 임기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환태평양정신의학회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지역을 통합한 세계 최대의 지역 정신의학회이다.

박시복 교수팀 중랑구보건소 발 건강 무료 진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족부클리닉 박시복 교수팀은 지난 9월 16일 중랑구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마을건강축제'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발 건강을 무료 진료했다.

정신호 직원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등재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정신호 직원이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사에서 발행하는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년도 판에 등재된다.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물리치료' 분야에서 최근 3년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그간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Event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세워진 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11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goo.gl/FiQi3m

09+10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당첨자

김현*	a**@hyumc.com
전인*	ab***@hanmail.net
김지*	jjjk***@hyumc.com
윤인*	ioy***@hyumc.com
조우*	denn*****@nate.com
윤미*	207****@hyumc.com
이유*	you****@dreamwiz.com
김윤*	213****@hyumc.com
박진*	pjh1***@hyumc.com
정태*	tjjou****@hanmail.net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14년 8~9월

TV 속 한양인

● 김희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8월 4일/ KBS 2TV [아침뉴스타임]/ 건망증과 치매, 8월 27일/ KBS 2TV [비타민]/ 치매, 9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치매

● 고주연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8월 9일/ KBS 2TV [인간의 조건]/ 피부 및 두피건강

● 주영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12일/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절염

● 최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12일/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절염

● 최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12일/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절염

● 임영효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8월 12일/ TV조선 [뉴스쇼 판]/ 심근경색

● 이오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8월 20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섬유질 섭취와 변비

●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8월 21일/ KBS 2TV [아침뉴스타임]/ 응급환자 진료

● 김상헌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8월 22일/ KBS 1TV [소비자리포트]/ 집먼지진드기

●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8월 22일/ TV조선 [뉴스쇼 판]/ 니켈 알레르기, 9월 1일/ MBC [내일 ON]/ 니켈알레르기

● 전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25일/ 연합뉴스 [뉴스Y]/ 경피증, 9월 22일/ KBS 1R [오한진 이정민의 황금사과]/ 통풍

●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8월 29일/ MBC [리얼스토리 눈]/ 루게릭병

● 박병배 한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9월 2일/ CTS [예수사랑여기에]/ 다발성 골수종

● 정민성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9월 3일/ KBS 2TV [생생정보통]/ 유방암

●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9월 3일/ SBSR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노인 수면장애

●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9월 12일/ KBS 1TV [소비자리포트]/ 관절 건강

● 심재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통증의학과 교수 9월 16일/ YTN/ 척추수술

● 황규태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9월 19일/ KBS 2TV [여유만만]/ 디스크와 관절

● 조석현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9월 23일/ 연합뉴스TV [헬스톡톡]/ 코피 응급처치법

● 전대원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9월 24일/ MBC [이브닝 뉴스]/ 커피와 설탕

● 김용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9월

신문 속 한양인

●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6일/ 경향신문/ 명의예감

●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8월 6일/ 중앙일보/ 노화

●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내과 교수** 8월 15일/ 헬스조선/ 시력과 생간

● **이항락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8월 16일/ 조선일보/ 단식

●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8월 19일/ 헬스조선/ 트라우마

● **홍상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8월 22일/ 한국일보/ 단맛 중독

● **박용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8월 24일/ 조선일보/ 성도착증

● **배상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25일/ 경향신문/ 루푸스

● **최찬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8월 27일/ 조선일보/ 류마티스 관절염

● **이규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8월 26일/ 헬스조선/ 아쿠아운동

● **김영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8월 27일/ 조선일보 뇌졸중

●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8월 28일/ 경향신문/ 루게릭병, 9월 1일/ 주간조선/ 루게릭병

● **김정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교수** 9월 1일/ 조선일보/ 건선

● **이오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9월 2일/ 중앙일보/ 역류성 식도염

●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9월 7일/ 중앙선데이/ 고산병

● **안희창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9월 17일/ 헬스조선/ 유방암 미세재건술

●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9월 21일/ 중앙선데이/ 성인 아토피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 (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283, 9285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만 원]

가수 정지훈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약정서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부금관리를 위해 보존되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자 인적사항

□ 동문 □ 교직원 □ 환자(가족) □ 학생(학부모) □ 법인(기업) □ 기타( )

□ 해당란에 모두 체크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성 명 (기업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동문기재) 대학(원) 학과(부, 전공)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주소 ( )

자택주소 ( )

이메일

유선연락처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금 원 (\ )

약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월( )원씩 / 총( )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기부금 용도 지정은 필수이며, 「법인세법 24조 2항」에 의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납입방법

□ CMS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본인 계좌에 관하여 출금처리 방법)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월정기납 □ 15일 □ 30일 **계좌번호**

년정기납 ( )월 □ 15일 □ 30일 **결제은행** 은행

비정기납 □ **입금자명**

□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6-273694 (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급여공제** ※교직원만 해당 사번 ( )

약정서 송부 이메일) hmcfund@hyumc.com / 팩스) 02-2296-3806

기타 문의사항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02-2290-9283)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절취선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4년 8월~2014년 9월 기부자 명단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동문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교수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연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오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강정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강춘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고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원장	고용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직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곽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구선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난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미선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순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영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오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경인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수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금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금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대성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김대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수	김동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두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령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김봉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성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소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수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숙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승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애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양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양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영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김용호	김용호정신과의원
교직원	김우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은철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정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종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진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택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명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화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회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김휘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남인중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남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광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노만희	노만희정신과의원
교수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노임환	엠디그린의원
교직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류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미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상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슬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영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문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기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명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성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박은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재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진용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찬남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원장	박충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박현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박환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흥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희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반재용	바노바기피부과
교직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배영주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백근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백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유란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백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초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희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서영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정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서진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설인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광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안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외순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성정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유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손한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규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송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태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혜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신인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규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심명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심요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안광무	안광무 내과의원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안명주	서울아산병원
동문	안정우	양평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안지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창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혜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광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정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엄기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엄홍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여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여은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염일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오기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오연이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오영배	한양내과의원
교수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오재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주연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오홍석	용인정신병원
교직원	오희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우춘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원홍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유창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유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성익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윤영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윤원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정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향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현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음희재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교직원	이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철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하	해남혜민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귀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금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다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명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민자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이선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세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순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슬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승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아람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양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용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우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자경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개인	이정옥	
교직원	이제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주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이창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충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향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혜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화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천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유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재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장정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전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석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전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영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종헌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현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형수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전희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옥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유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은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정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정찬호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정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혜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경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광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기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명규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조문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미행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조상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성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아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영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영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조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주임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진귀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차경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차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선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숙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영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근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도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재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정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최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현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하루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하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한지홍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원장	허윤석	분당지상정신과의원
교직원	홍경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성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홍성우	홍성우피부과의원
교직원	홍순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의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국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미향	한양대학교병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실장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황세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황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황윤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황인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인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Culture **Calendar**

11 November

11.4 TUE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2시
성수종합복지관

11.17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에벤에셀중창단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11.18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우리아이 코골이 치료가 필요한가?–이비인후과 정진혁 교수
◆오후 3시 구리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9층

11.22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진단과 치료2
– 신경과 박진석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2 December

12.1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 콘서트– 황재경 목사
– Grace Christian College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12.5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이명환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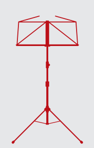
12.5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대장암, 조기발견이 중요해요
–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2.8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실내악앙상블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12.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인선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1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7080 콘서트
– 구리문화예술단체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20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2014 루게릭병클리닉 환우 송년회– 신경과 김승현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2.2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색소폰 연주 – 원요섭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02 – 2290 – 8114■ **응급실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월화수목금	월	간질환
	함준수	화, 금	목	간질환, 담췌장질환, 위장질환
	최호순	수, 금, 토(1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
	이오영	월, 수, 토(3주)	목	식도, 위, 장
	전대원	월,화,목,토(5주)	수, 금	간질환
	이항락	금, 토(4주)	화, 금	식도, 위, 장
	이강녕	화, 토(2주)	월, 목	식도, 위, 장
	두은영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안용우	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유기덕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영택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강원	토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헌길	월, 목	월, 수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김경수	화, 목, 토(1,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수,금, 토(4,5주)	수	심부전, 심혈관 중재술,
	임영효	수, 금	월, 목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지환, 일반심장질환
	이형탁	토(3주)		일반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월, 화, 수, 금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수, 목, 토(1,2주)	월, 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화, 목, 토(3,5주)	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오일환	금, 토(2,4주)	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 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화,수,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웅환	월,화,수,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금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5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박성수	화, 수, 금, 토(1주)	월, 화	폐암, 폐결핵, 급성폐손상, 폐섬유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신동호	토(3주)	화, 수, 목,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윤호주	월, 수, 토(2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토(4주)		폐결핵, 폐렴, 폐암
	김상헌	수, 금, 토(5주)	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이지영	목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화,수,목,금	혈액질환, 골수이식, 고형암
	박병배	화, 목	월, 금	고형암,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이준호	월,화,수,금	목, 금	혈액종양 질환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수(경련)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신재훈	수, 목	월, 화	소아내분비질환
	오성희	목, 금, 토(1주)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화(심초음파실), 수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 금▲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화,수,금,토(2주)	월, 수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경석	화, 금, 토(4주)	목, 금	호흡기알레르기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8368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루게릭)▲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장애), 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김현영	해 외	연 수	
2290-8355 서관 7층	김희진	화▲, 금, 토(2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김영서	화, 목, 토(1,3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최원준	월▲금▲토(4주)	월▲, 목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뇌졸중, 루게릭병
	오기욱	월▲금▲토(4주)	월▲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강석재	금, 토(1,2주)	화	이상운동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박진석	화, 토(3,4주)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남정현	월, 목, 토(2주)	월, 목	사회정신의학, 성폭력상담, 정신분열증, 치매
	안동현	수, 토(5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동훈	월, 목, 토(1,3주)	수, 목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조성진	목, 토(4주)	월, 화	소아정신의학
이동준	월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금	월,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목, 토(2,4주)	화,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김정은	월, 수, 토(1,3,5주)	목,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5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화	목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토(1,4주)	월, 금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대사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강정호	월, 수, 금		폐, 종격동 및 식도외과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토	목, 금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화, 목	목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금	금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토	월, 화	슬관전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1577 - 9382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 (요추디스크,경추부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수종양)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화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토(3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이형중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2,4,5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변형수		수	일반 신경외과 질환
	한명훈		금	일반 신경외과 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및성형, 선천성얼굴7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수	화, 금	비만성형, 미용성형
	김연환	화, 목, 토(1,3주)	화	미세재건수술, 안면골절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안용수	토(2,4,5주)	월, 목	미용성형(코,눈), 피부미용, 액취증, 안면부 외상
산부인과 2290-8400	김경태	화, 목	화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복강경수술
	조삼현	월, 수	수	일반 산부인과, 자궁암, 유방암
	황정혜	수	월, 목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화,목,토(2주)	수,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고아라	토(4,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정언석	금, 토(1,3주)	월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토(3주)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송인석	금, 토(1,3,5주)	월, 화, 수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임한웅	금, 토(2,4주)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문상원	토	월	미숙아망막, 일반안과질환
	이주향		화	안성형,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토(1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화, 금, 토(3주)	화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월, 토(4주)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수, 토(5주)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박 건	목	수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수, 금, 토(2주)	월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토(4주)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화	월, 금	전립선·신장·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5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김태곤	화, 목, 토(4주) 월▲	화,목(1,3,5주),금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서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이명자	월,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
	전하정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토(1,5주)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김지영	토(3,4주)	월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턱얼굴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 코골이장치
	박창주	해 외	연 수	
	한지영	월-금	월,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임재중	월-금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김태건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전재윤	월, 화	화, 목, 금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월, 수, 토(2주)	목, 금	스포츠의학
	황환식	화, 목, 금, 토(4주)	월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석원		화, 수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월, 화(2,4주), 목	월, 화(2,4주), 목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1,3,5주),	화(1,3,5주),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수, 금	수, 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화,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2주)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4주)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1주)	월, 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성윤경	월,화,수,금,토(4주)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최찬범	월, 수, 금, 토(5주)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랜증후군
	조수경	월, 수, 목, 토(4주)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진주	화, 수, 토(3주)	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랜증후군
	주영빈	월, 목, 금, 토(1주)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랜증후군
	구본산	토(4주)	화,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랜증후군
	최정임	토(2주)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랜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절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중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화		전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진규	목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고 용		화, 수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박훈기		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석원	월-금, 토(2,4주)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월, 목	수, 금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김태엽	목, 토(1,3주)	화, 수, 금	간질환
	변영재		금	소화기질환
	김선민		수	소화기질환
	노영욱		월	소화기질환
	정종관		화	소화기질환
	김지연	토	목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김순길	월, 화, 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최성일	목	월, 수, 금	고혈압,허혈성심질환
	박환철	화, 수, 토(1,3,5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토(2,4주)	월, 화, 목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김호중	월, 화, 목	월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한상웅	월, 수, 금	화, 목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이주학	화, 목, 토	수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윤혜진	수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내분비대사내과 560-2220	박용수	월, 금, 토(3,4주)	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이창범	수, 목, 토(1,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홍상모	월, 화, 토(5주)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수,목,토(3주)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방소영	화, 금, 토(2,4주)	수, 목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월, 수, 토(1,3주)	화, 목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용	화, 목, 금, 토(2,4주)	월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종내과 560-2220	최정혜	화, 목, 토(2, 4주)	월, 수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월, 목, 토(2,4주)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화, 금, 토(2주)	화, 금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월, 화, 토(3주)	화, 목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신경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이경석	토(4주)	수	소아호흡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월, 화, 목, 토	목	치매, 뇌졸중, 두통
	임형균	화, 수, 금	금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560-2270	박용천	월,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토(3주)	월, 화	PTSD,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신경영상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월, 금, 토(4주)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2주)	월	뇌혈관질환,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3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3주)	금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토(5주)	월, 수	두부외상, 척추질환, 통증, 일반신경외과질환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월, 목	월, 수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노선균	화	화, 목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남승혁	수, 금	금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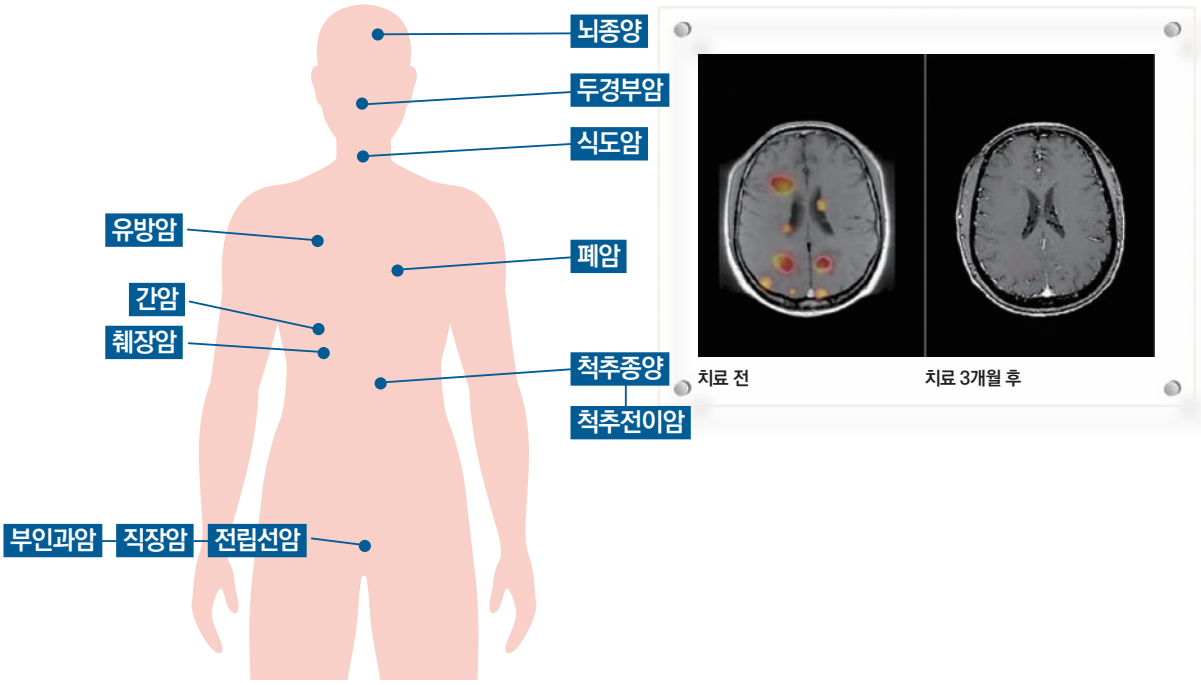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화, 목	화, 목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박예수	수, 금, 토(2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김종헌	목, 토(4주)	화, 수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화, 토(1,5주)	목,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3주)	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월, 수, 금	수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과
	이정한	목	월, 화, 목, 금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산과
성형외과 560-2330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정현	화, 목, 토		악안면 및 미용성형
	류재만	수	화, 금	일반 성형외과질환
외과 560-2290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박훤겸	화, 목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질환
	김민규	수	화,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최민영	금	월, 화	유방, 갑상선질환
안과 560-2350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화, 토	화, 금	외안부, 굴절, 백내장
	임한웅	월, 토(1,3,5주)	수, 목	안성형, 사시, 백내장, 눈물길, 안와골절
피부과 560-2280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백준오	화	수, 금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토(5주)	화, 금	부비동염,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수, 토(2주)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목, 토(3주)	월, 수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오재호	화, 토(2,4주)	목, 금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알반·소아이비인후과
	산명철	금, 토(1주)	월, 화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알반·소아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화, 목, 토(5주)	목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문홍상	수, 토(2,4주)	월, 수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3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560-2380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월, 화, 수▲, 금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수, 목	화,수▲,목,금	근골격계, 소아재활, 뇌질환, 스포츠 재활
	조영필	목▲	목▲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3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김윤영	화, 금, 토(1,4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영상의학과 560-2320	오지영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 시술

* 2014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노발리스티엑스센터'

암세포를 정복하다

최첨단 방사선 치료 시스템 '노발리스티엑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치료 시스템인 노발리스티엑스는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으로 전신 암에 대해 안전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뇌·척추 종양,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간암, 육종, 췌담도암, 전립선암, 소아암, 전이암 등 전신 암을 비롯해 뇌하수체 종양 및 뇌종양 등 종양질환과 동정맥기형, 각종 혈관종 같은 기능성 뇌질환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공격하여 정상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단 2~3분만의 치료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최첨단의 방사선 치료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